

결혼을 축하합니다

최하나 대리 (712팀)	07월 05일
박용희 대리 (5부문 물류팀)	07월 19일
이유미 대리 (551팀)	08월 31일
장주희 주임 (263팀)	09월 20일
배숙진 주임 (623팀)	09월 20일
이용헌 대리 (611팀)	09월 21일
윤용필 대리 (313팀)	09월 28일

타생을 축하합니다

미국인 3명 중 1명은 한세옷을 입습니다

박승현 대리 (533팀)	06월 28일	원동석 과장 (6A31팀)	09월 05일	
이수비 주임 & 최영준 대리 (1A21팀 & 1A72팀)	07월 15일	손기현 대리 (315팀)	08월 25일	
황수연 주임 (1B13팀)	08월 08일	이소영 대리 (6_7부문 물류팀)	09월 01일	
권오윤 대리 (152팀)	08월 20일	하정현 대리 (331팀)	09월 23일	
노지은 과장 & 김학중 대리 (1B62팀 & 215팀)	08월 22일	정재진 대리 (572팀)	09월 28일	
여은우 주임 (331팀)	08월 28일			

HANSAE; IN

HANSAE QUARTERLY MAGAZINE Vol.002 AUTUM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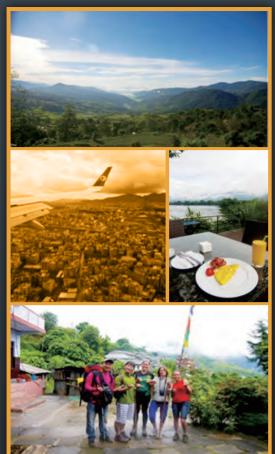


2014년부터 한세실업의 여름휴가가 4일에 서 5일로 하루 더 늘었습니다. 겨우 하루 일 지 몰라도, 주말을 붙여 사용한다면 6일에서 9일로 늘어남 셈입니다. 늘어난 휴가를 한세 in은 어떻게 보냈을까요? 특별한 여행기를 소개해 드립니다.

222팀 주여빈 주임

입사 1년 되어, 대만친구도 매우 부러워 하는 여름휴가를 얻었다. 사실 대만에서 한국으로 온 나는 1년 내내 한국에서 해 외여행을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내 가 계획한 여름휴가는 고향(대만)에서의 휴식과 맛집탐험이었다. 새벽 4시, 대만 사람의 무서운 의지력으로 인기 만점 아침밥 집을 향해 출발한다. 아침 10시, 브런치를 먹 으며 agency와 샘플 때문에 찢어지는 나의 속상한 마음을 위로한다. 점심 12시, 낮술을 생각나게 하는 대만 볶음 요리 음식점으로 간 다. 후식으로 버블티를 마신 뒤, 오후 4시 파 우파우빙으로 입가심을 한다. 이것이야말로 나의 진정한 사랑이다. 땅콩, 붉은강낭콩의 조합은 천하무적이다. 이것과 더불어 도우화 라는 대만 간식은 여름, 겨울 가리지 않고 먹 을 수 있는 최고의 디저트다. 오후 6시, 에어 컨 빵빵 터지는 매운 훠궈집을 향해 달렸다. 무한리필되는 음식들로 인해 배가 너무 불렀 다. 소화할 겸 산책을 떠난 우리는 우리도 모 르게 야시장에 와 있었다. 손과 입을 멈추지 않은 먹방 산책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소화는 좀 되었다. 오후 9시, 집 근처에 있는 튀김집 에서 고구마, 소시지, 닭 껍질 튀김에, 콜라와 맥주 2캔을 사서 집으로 향한다. TV, 가족, 그 리고 야식의 조합은 바로 만 칼로리 행복의 하이라이트가 아닌가 싶다. 이렇게 만 칼로리 의 행복을 즐길 수 있게 해주는 우리 회사, 우 리 소팀장, 우리 팀이 너무 좋다. 앞으로도 잘







여행기 🔺



올해부터 하루가 늘어 최대 9일을 쉴 수 있게

132팀 최재혁 주임

된 계기로 여름휴가지 정하는데 백만 번을 고 민한 것 같다. 최종적으로 정한 곳은 평소 에 꼭 가보고 싶었던 설산(雪山)의 나라 네팔이었다. 네팔의 특성상 트레킹이 필 수인데, 9일이라는 장기간의 휴가는 트 레킹을 하기에 최적이었다. 네팔 트레킹의 필수관문인 포카라에 도착했을 때, 각종 건 물들이 아기자기 해 마치 레고를 보는 듯 했 다.(포카라에서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이 거의 없다.) 초보자들이 많이 간다는 푼힐전 망대(3,210m)를 목표로 하고 출발!! 등산 중 간에 살짝살짝 비치는 7,000~8,000m 급의 고봉들은 보는 사람을 숙연하게 할 정도로 웅 장하고 위대했다. 네팔은 전 세계 트레커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트레킹 중에 많은 친 구들을 사귈 수 있었고, 저녁에는 한국 고유 의 술 게임들을 각국에 알리는 전도사가 되 어 한류의 세계화에 한 몫(?)을 했다. 트레킹 후, 드라마 '나인' 촬영지로 유명한 곳에서 설 산과 호수를 바라보며 먹는 아침은 정말 신선 놀음이 따로 없었다. 그리고 향한 곳은 화장 터. 현재까지 공개 화장 문화가 남아있는 네 팔. 내가 방문했을 때도 화장터에서 화장이 진행 중이었다. 눈앞에서 어느 누군가의 아버 지, 어머니 혹은 소중했던 한 사람이 한 줌의 재로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문득 죽음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사람 수보다 더 많은 신들이 존재하는 신들의 나 라. 8,000m 이상의 고산들을 수많이 가지고 있는 설산의 나라. 정말 간절해서였을까. 네 팔에서의 소중한 경험들은 쉽사리 잊혀지지 않는 마음속의 보물이 되었다.

3A22팀 정한솔 주임

작년 2013년 겨울,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다. 현재 나의 남편인 지상배 주임의 가족은 모두 외국에 거주 중이다. 바로 슬로바키아! 양 가 부모님의 첫 인사는 전화로 이루어졌 고, 상견례 겸 여행 준비는 나와 남편 그 리고 그 곳 여행을 많이 다니신 시부모 님과 함께 하였다. 무려 한 달의 준비기간 을 거치고 지난 4월, 우리의 특별한 상견례 가 시작되었다. 4월 24일 먼저 유럽으로 들 어와 여행하고 계셨던 부모님을 네덜란드 암 스테르담에서 만나 함께 여행을 시작하였다. 곧바로 체코 프라하로 이동해 야경을 구경했 다. 오후에 슬로바키아 행 기차에서 말도 안 되는 크기의 유채꽃밭을 감상하고, 질리나 역 에서 시아버님을 뵈어, 드디어 양가 부모님의 첫 만남이 성사됐다. 시부모님 댁에 도착했더 니 여러 음식이 이미 준비 되어 있었고, 점심 으로 맛있는 BBQ Party를 하였다. 꺄올~ 시 어머니께서 처음으로 준비해 주신 음식을 맛 있게 먹고 나서 근교의 아름다운 성을 구경했 다. 4월 27일 다함께 약 2시간 거리인 오스트 리아 빈으로 향했다. 풍력 발전기, 역대 오스 트리아 최고 왕가인, 합스부르크 왕가의 여름 별궁,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많이 알려진 강 가의 Rib 레스토랑(Strand Cafe)에서의 저녁 식사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단 며칠이었지 만 함께 여행을 하며 좋은 추억을 쌓았다. 1일 추가된 여름 휴가 덕분에, 여유로운 유럽 여행겸 상견례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오키나와로의

5부문 물류팀 윤소영 주임

8월 23일~30일, 입사 후 가장 긴 휴가 를 맞이하여 힐링 여행을 계획하였다. 나 의 6번째 일본방문이 된 이번 여름휴가 의 여정은 "카루이자와-쿠사츠(일본 3대 온천 중 한 곳)-오키나와"였다. 그중 최근 많은 프로그램에서 다뤄졌던 오키나와를 중 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가장 인상 깊었던 여행지는 만좌모, 츄라우미수족관, 슈리성이 다. 최근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에서 배경 으로 나왔던 만좌모. 너무 일찍 가서인지 사 람이 많지는 않았지만, 코끼리 코 모양의 절 벽과 넓은 잔디밭은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츄 라우미수족관에서는 사진으로만 보던 고래상 어의 크기에 놀랐고. 옆으로 헤엄치다가도 먹 이를 먹을 때는 수직으로 서있는 모습이 신기 했다. 특히 휴양지로만 알고 갔지만 오키나와 의 슬픈 역사를 알게 해준 세계문화유산인 슈 리성. 오키나와는 원래 류큐왕국이라는 독립 국이었지만 전쟁 등으로 인해 일본에 복속되 어 그들만의 문화 및 민족성을 잃어갔다고 한 다. 오키나와가 "일본안의 식민지"라고 불리 는 이유를 알 수 있게 해준다. 오키나와에서 가장 좋았던 것은 아름다운 바다와 하늘이었 다. 어디를 가나 보이는 따뜻한 햇볕 아래의 푸른 바다와 하늘은 힐링여행의 재미를 안겨 주었고, 일본인 및 여행책자에서 추천해 준 속속 숨겨져 있는 풍경이 예쁜 카페를 찾아가 는 것도 즐거움 중 하나였다. AW버거의 물 파스 맛 나는 무알콜음료 루토비아는 처음 먹 었을 때는 별로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상했지 만 먹을수록 중독성이 생겨 돌아오기 전날 찾 아 먹을 정도였고, 자색고구마 아이스크림과 자색고구마 타르트도 꼭 먹어야할 먹거리인 듯 하다. 다만 내가 갔던 8월 말은 습한 기온 때문에 가만히 서있어도 땀이 흐를 만큼 더웠 다. 더위를 많이 탄다면 1~2월에 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상을 생각로 만들기 위해 2년 해요! 원들

<u>우리는 한세 드림팀 <mark>유니클로 담당 715팀</mark>입니다</u>

한세실업에 외계인이 산다. 베이스 캠프는 715팀이다. 색 능수능란하게 지구인 행세를 하고 있는 이들은 모두 동일한 DNA를 지녔다. 언제나 시크하고, 처진 어깨 따위는 보여주지 않으며, 무심하게 던지는 개그 코드도 비슷하다. 가장 닮은 건 크리에이티비티다. 우리는 '한세실업 715팀'이다. 글 · 윤진아 / 사진 · 안지섭





새 역사 일구는 프론티어의 힘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지만, 715팀에는 있다. H&M, 자라에 이어 유니클로와 수출계약을 체결해 글로벌 3대 SPA 브랜드에 의류를 공급 중인 한세실업, 그 중심에 이들이 있다. 전체 매출 중 미국 수출 비중이 98%를 차지하던 시기, 715팀은 한세실업 최초로 일본 바이어 수주를 진행하며 시장을 폭넓게 확장한 주역이다. 뿐만 아니다. 유행에 민감한 SPA 브랜드인 유니클로에 한세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부터 디자인 제안, 생산관리, 출고 및 영업까지 전 과정에 관여하고 있다. 보통 SPA 브랜드에서는 ODM이 쉽지 않은데 빠른 시간 안에 바이어와 신뢰를 쌓고 인정을 받아 ODM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715팀이 자랑하는 가장 큰 성과다. 유니클로 사업의 모든 프로젝트 선봉에서 제안과 선행을 통해 사전 기획된 내용을 형상화하는 게 이들의 미션이다. 지난해 10월 715팀에 합류한 황선정 팀장은 일본에서 10년 넘게 살며 현지 문화와 기업 특성을 정확하게 간파한 '일본 전문가'다. 바이어와 치열하게 논쟁하고 조율하는 미운오리 역할의 선봉에 선 덕분에 소비자의 감성을 사로잡은 최적의 상품이 무사히 세상에 나왔으니, 까짓 미운오리, 기꺼이 한다는 너스레에 미소가 고인다. 대학생시절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왔다가 '한국 앓이'에 빠져 한세실업의 문을 두드린 아야카 주임은 일어, 한국어, 영어에 능통한 다재다능한 인재다. 사랑해 마지않는 한국 여기저기서 영감을 받는다는 아야카 주임은 가로수길 등 핫플레이스는 물론이고 흥미로운 박람회나 전시회가 열리면 꼭 참여해 견문을 넓힌다. 715팀은 뛰어난 국제감각은 물론, 구성원 전원이 외국어 능력 고급 기량을 검증받은 '글로벌 인재 풀'이기도 하다. 일본에서 패션 디자인을 공부한 홍정윤 주임, 호시탐탐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어 소비자들의 새로운 욕구를 건드리는 김상희 주임 등등 모두들 각자의 포지션에서 각기 다른 능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715팀의 내공 충만한 요원이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한 수 위 팀워크, 한세실업에 날개를 달다

이들의 사전에 '적당히'란 단어는 없다. 깐깐한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더 깐깐한 수준을 넘어 완전무결한 결과물로 승부해 야 하기 때문이다. 고객사 밀착관리를 통해 일본 시장에서 다양한 사업 기회를 확보한 신태식 부장은 "고객이 뛴다면 우리는 날아야죠. 일본 인 클라이언트들의 특징 중 하나가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한다는 거예요. 초창기인 만큼 어떻게 보면 아직은 우리를 100% 신뢰하지 못하는 게 당연한 일이기도 하고요."라며 "프로젝트 진행상, 그리고 파트너십 구축 면에서 필요한 일이라면, 설령 한밤중에 예고 없이 베트남 현지 공장에 날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차원이 다른 솔루션을 제공하며 고객감동을 실현하고 있습니다."라고 귀띔했다. 일본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715팀은 적정 수위의 정보를 고객사와 긴밀히 공유하며 파트너십을 견고히 하고 있다. "고객사와 완하는 것이 무엇이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가능한 자수 찾아가 간지라운 부분을 공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단순히 얼굴을 자주 비추는 것은 무의하지 요. 고객사에 실질적으로 유용한 정보나 사장시항에 대한 전문적이 조언을 들고 강으로써 '당신들의 고민을 우리도 이렇게 진지하게, 깊숙이 고만하고 있다'는 수 하를 보려구려 고 노력했습니다. 안전가 일본 본사 의원이 '회 한세가 일본시장에서 슈퍼루기로 따르르고 있는지를 알 것 같다'고 말하는데 왠지 아까가 오쓱하지다군요(웃음). 민고 의지할 수 있는 말착형 파트나가 되어 '깐만한 고객'을 우리의 'Fon'으로 만드는 것을 하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한세실업의 미래 먹거리를 찾아 나선 이들이 내린 결론은 지체하지 말고 필사적인 각오로 최고의 성과를 내야 한다는 것. 아직은 적은 인력에 리소스도 적은 게 사실이지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일수록 더욱 해볼 만하다는 의욕이 생긴단다. 상상력 충만한 동료들과 바지런히 소통하며 깜짝 놀랄 차기작을 준비 중이라는 이들은 "미래지항적이면서도 하무맹랑하지는 않은 차세대 먹거리를 속속 선보이며 우리의 팀워크를 증명할 테니 지켜봐 달라"는 말로 또 한 차례 신나는 도약을 예고했다. 남들이 모방할 수 없는 창조적 아이디어와 부단한 노력으로 전 세계를 휘어잡겠나라고 선포한 이들이 앞으로 또 얼마나 기가 막힌 신성장동력을 만들어낼지, 지켜볼 만한 일이다.

당신의 가장 오래된 물건은?

129/1-21/13 아무근으로 하는 이 하고 있을 다니, 선생버가 선물해준 제 복제이스 방의 こけたなり、そられできないした

623팀 김용남 대리

रेट्सा रे एयम दिव्वि तन्वार्ट 地差小什么数时时就是多,2001日 मिहित पिरी राई मा, देरिक्षाम देरी 以如此的UT. 中社们的巨党 내롯하다 한세 본급자를 제출 때 또두 관이된 於MIONH는 가보라고 할수 %urt.

한세 TG 행정총괄 김상률 차장



허선주 과장

2003日到77日 सम्य रेड १८०२०। イナモ ファルイナフリ. 이게 나와는 र्द्राच्यारिका! 경영분석1팀



1998र नेन्यें। रिट्ट परेंट 75年被北海111十十七 戏意社 中間礼戏意 地是智能 化水流 नेप्ति द्वा ग्राहिस पानी 가지는 오래된 추억. Coordinating부본부 서귀영 상무

711 %/16 201 9712 1012 27020 WINT 제외나 M의 17년 가하는 Mings हेर्मा हेमर न्यूत्रमण्टेगार. नेश द्री, 2711 जिंद गांवामत 11ई १२१२१२१ व्यार्ट रहेरेन्त द्रिय गाल्ड भन् १५५५३ माह 21부 곽은경 차장



E-MAIL स्थिता राजिनस्यारिता देशकी 1910 देशोरे तप्तरहेत्य केन्सेमिन्यूट. ol स्थि ॥ ति राष्ट्र राह्मिराड प्रमेशेन श्रूपिटन 3B61팀 김은미 과장

2010日明十十十十二日 로시자 발제에 생기들은 7에서는기를 쓰기 시각하는 다린서 나와 itm INIEVES 다녀온 7711年11、171、171、1711日 对 出了 公司是~ 1부문 물류 이선혜 주임



결재서류

061354E1 2016 3/11 CHOIOTZIGUEL. रेट्यार्टिस्ता सा न्यर्गित द्वाला रेट्याटा न्यर्गाम हेर्य 한세 VN 행정총괄 이진우 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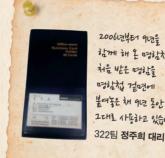


23H5171 05047112t, राख मध्य राष्ट्रास्थ 3H210世午1111 1支花3H2 150至 时已位置 केर्तर नेप्तर्भाजा द्वारीन ा गुरेनुई प्राय गुर्भिनेत ल्येन प्रमाश द्वेशीह गालके पारन. 713팀 방유리 주임

업무 인수 인계서 EXRIBE BAR WAR 8-2:-8 088 ME 6

子이 10 10 2000 12 12 12 性什么这性人民活力是一个一 रेचेत्रम न्यार्य्य त्राव्यम् त्रार्थित्रा (HOTEL 라는 나기는) 전, 당시 이은 구이는데게 이수이기계한 자를 항는 카타가 아지도 제 파일에 있네요. 재정부 김세한 차장

2003रि श्री मा दुर्नाहरू रेट्ना न्यर्नेह्रा राहिट निष्ठेन्ता ेंद्र रेटा डेराया हराया तम्सेन्स् 作可是 李介十 完 中处口险. 1B61팀 이래성 과장



2006년부터 위원을 हेर्मा देम १ व्यहित्रेतु. 처음 나는 건강들 ष्टिंदेरी रहिल्ला 불어둘는 채 의건 동이는 그대로 사람하고 있습니다.

स्था OLD NAVY हैला र्य्याल श्रीहर, श्री ने पर मेह WHY WESTER K-MART ELSI MEGO VEOL STOUTH. M) 531팀 가경선 주임

当十章

처음 나는

CASIO TAIKETI.

15부 곽태훈 차장



2006년 생사 호 रान्तारा हेर्मारे 771KE71. E1101E3 म्लायम प्रद्वाद 湖湖村 भाग स्था क्रा 222팀 명재환 대리 2007रि दीर्भ रा, त्रिश्वामा द्विनारि सार्धार्थपटर गया सम्तर्गि हेर्न भेमनामा द्वानिक मेर्ना, सा र्वाप प्यान भिरागार सीता केलाह. 해외지원팀 이경현 대리

사이판 생산으로 이제는 단종되어, 서류작업하는 직원에게 가보처럼 내려오는 제침기



2002년 사이판 전출시, 티켓티었던 Ulity TI EITHOUNCE. BHEINGOLON THEE 얼네이나 무러움을 그대로 간지하고 있다. 경영기획팀 김서라 과장

44 지원부(여) AM2100 최주리 총무팅

राधितारि रहेग्य में हा अम्प्राय हे एक्ट्रि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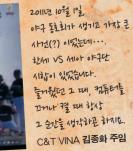
ग्राहिश्वार. में हे रे ग्राम स् मा तमाय हे मा

सार अमरे। यह हाई व्हारा र देवल्य वर्ष (?)

金だのなのな.

1부문 물류팀 최주리 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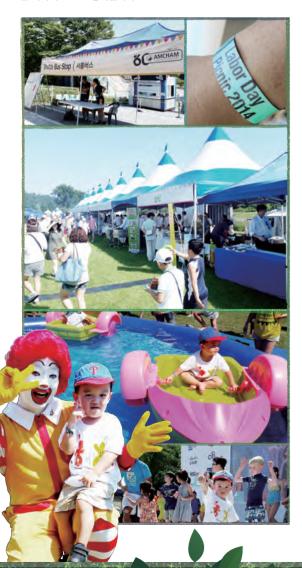
07

AMCHAM Labor Day Picnic 2014에 다녀오다!

한세실업의 지주회사 한세예스24홀딩스는 AMCHAM 회원사로, 매년 AMCHAM PICNIC 행사를 후원해왔습니다. 직원들의 회사 밖 행사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올해부터는 1본부당 1기족씩 PICNIC 참여 기회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내년 Picnic도 기대해 주세요. 글·경영정보팀 윤재웅대리

AMCHAM Labor Day Picnic 2014

2014년 8월 30일 여름의 마지막쯤 AMCHAM Labor Day Picnic 에 참석했습니다. AMCHAM(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은 주한미국상공회의소로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을 대표하는 사단 법인 성격의 경제 단체입니다. AMCHAM Labor Day Picnic은 미국 노동절을 맞아 AMCHAM 회원 및 후원 기업의 임직원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음식과 이벤트를 제공하는 미국식 Picnic 행사입니다.



일단 AMCHAM Picnic을 위해 아침 일찍 서둘러 집에서 출발 하여 미사리 조정 경기장으로 향했습니다. 넓은 잔디밭 위에 여러 조형물 들이 있어 아이들과 함께 뛰어 놀기에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잠시 놀 다 보니 셔틀 운행 시간이 되어 AMCHAM Picnic 행사장으로 향했 습니다. 주차장에서 셔틀버스를 타고 3분정도 가니 행사장이 나왔습 니다. 행사장 입구에서 출입 팔찌를 착용하고 암참으로 입장했습니다. 입장하니 벌써부터 여기저기 음식들 준비로 바빴습니다. 일단 자리부 터 잡고, 배를 채울 음식거리들을 둘러보니, 피자, 치킨부터 각종 음료 수까지 정말 다양한 종류의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요기를 채우고, 아 이들이 좋아할만한 놀이 체험 행사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야구공을 던 져 Speed에 따라 상품을 지급하는 행사장, 아이들이 좋아하는 미니 기차, 비눗방울 놀이 Zone, 보트타기 놀이, 에어바운스 등 다양한 체 험공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우리 가족은 옷 만들기 체험을 했는데. 원하는 모양을 골라 전사지를 재단해서 T-Shirt에 다리미로 전사하는 체험이었습니다.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경품게임도 참가했습 니다. 게임은 2가지였는데, 탁구공을 튕겨 들어가는 컵에 있는 번호에 맞는 상품을 주는 AMCAHM Pong과 병뚜껑을 손으로 튕겨 해당 색 상에 들어가면 색상에 맞는 상품을 주는 Finger Curling이었습니다. 그렇게 맛있는 음식과 다양한 놀거리 그리고 푸짐한 선물을 가지고 2



비록 날씨가 조금 더웠지만 가족과 함께 오래간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 냈습니다. 집에 와서 받아온 선물들을 펼쳐보니 정말 많은 걸 받아 왔 더군요. 다음에 어떤 직원분이 당첨되어 참석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기회가 된다면 또 참석하고 싶은 Picnic이었습니다.



니카법인 이야기

한세in에서는 매회 한 개 법인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현재 11개 법인 중, 그 첫 번째로 니키라과 법인을 소개해 드립니다. 글 니키라과 main office 총무심영호주임

안녕하세요. 니카지기 심영호 주임입니다. 생산기획들의 니카법인 내 생활 소개를 통해 Nicaragua가 생소한 분들에게 니키를 대표할 만한 것들을 긴략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4월, Managua 시내에 위치했던 기숙사를 새롭게 이전한 Niquinohomo 공단 내부로 옮기면서 현재는 출퇴근 시간으로 인한 업무 Loss가 없습니다. 도보로 5분이면 출퇴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장 내 비상 상황 발생 시에도 신속한 대처가 가능합니다.(우리는 5분대기 조) 퇴근 후술한 잔 생각나는 날, 주변에불 켜진 상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지만 전혀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숙사 내에 안락한 사랑방과 최첨단 Karaoke(PSY 강남스타일 선곡가능)시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니카법인 기숙사 식당에서 제공되는 '山海珍珠'는 이미 많은 출장자 분들을 통해 검증이되었습니다.

주말에는 좀 더 풍요로운 여가 생활을 즐기기 위해 통근 차량을 이용해 Managua 시내를 다 녀옵니다. 쇼핑, 사격, 마사지, 수영, 테니스 레 슨 등을 통해 한 주간 쌓였던 피로를 풀고 재충 전의 시간을 보냅니다. 기 어려운 음식들을 맛볼 수 있는데 특히 'Churrasco(스테이크)'는 Nicaragua 방문 시 필히 먹어봐야 할 대표 음식입니다. 쇠고기 뿐만 아니라 랍스터와 같은 해산물도 값이 싸 고 맛이 좋아 즐겨먹는 편입니다.

주말 맛집 투어를 통해 한국에서는 맛보

서쪽으로는 태평양, 동쪽으로는 카리브해, 내륙에는 12개의 화산이 존재해 시간을 조금 투자하면 이색 관광지 투어도 가능합니다. 거북이가 알을 낳는 해변 'Coco', 멕시코 칸쿤의 해변을 능가하는 'Corn Islands', 현재도 활동 중인 화산 'Volcan Masaya', 커피농장 견학과 분화구 주변 트레킹 및 짐라인 체험이 가능한 'Volcan Mombacho', 화산 분화구에 빗물이 고여 만들어진 'Laguna de apoyo', 화산재 보드를 탈수 있는 'Volcan cerro negro' 등은 법인 근무 기간 동안 꼭 다녀와야 할 관광지입니다.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해외에서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고, 공장 내 1,000명이 넘는 현지인들과 교류한다는 것이 분명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해외근무는 빠른 시기에 관리의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새로운 전입자분들이 주말 다양한 여가 활동과 투어를 통해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잘 해소할 수 있기를 바라며 니카법인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니카라과 호세 엔리케 노동부 차관 한세베트남, 여의도 본사 방문

호세엔리케 니카라과 노동부 차관은 9월 27일~30일 일정으로 베트남을 방문해 한세 베트남 현지 법인을 견학하고 곧이어 여의도 한세실업 본사를 방문했다. 회사가 노조 와 정부와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활동과 지역 사회 공헌에 힘쓰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전하며, 이번 방문을 통한 관계증진을 계기로 양국의 상 호 발전을 위한 아주 좋은 토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2015' F/W 패션 트렌드 발표회

한세실업은 9월 14일 여의도 하나대투증권 한마음홀에서 제20회 2015 F/W패션 트 렌드 발표회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발표회에는 국내 의류/패션에 관심있는 대학생 30 여 명을 초청했으며, 발표는 전 세계적 추세인 스포츠에서 영감을 받은 고성능 기술 소재를 필두로, 각 성별 패션 핫 이슈들을 살펴보는 순서로 진행됐다.



G24 세번째 정기공연@ club CRACK

한세그룹 사내밴드 동호회 G24의 세번째 정기공연이 9월 26일 홍대 클럽 CRACK에 서 진행되었다. 1년동안 준비한 이번 공연을 통해 임직원이 하나되어 즐길 수 있는 즐 거운 자리가 되었다. 정기공연 수익금은 사내 봉사 동호회를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쓰



뛰어라 우리아이 캠페인

한세실업이 후원하는 뛰어라 우리 아이 캠페인이 3사분기에도 이어졌다. 9월20일~21 일, 대구 동구 박주영 축구장에서 제 3회 컬리수 축구대잔치 리틀 K리그를 개최하였고, 8월에는 예스24와 아이스타일24를 통한 축구공 드림이벤트도 진행했다. 특히 이번 축 구대회에는 권영진 대구시장이 직접 참석하여 자리를 더욱 빛내주었다. 한세실업은 청 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후원이 부진한 어린이들의 스포츠 활동을 지원해 잠재적인 재 능을 발견할 수 있도록 어린이 대상 후원활동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Forbes 8월 호, 김동녕 회장 Cover Story

Forbes 8호에 김동녕 회장의 '수읽기 경영'에 대한 인터뷰 기사가 나왔다. 김회장은 가로 세로 19줄로 이뤄진 바둑판에 경영전략뿐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법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인터뷰 기사는 Forbes cover로 소개되어 더욱 의미 있는 기사였다.



김동길 교수 초청, 조찬 강연회

9월 17일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시 대를 읽는 토크멘토, 김동길 교수를 초 청한 조찬 강연회가 진행되었다. 시민 사회단체 운동과 언론인, 방송 강연 활 동과 국회의원 등의 자리를 거친 김동 길 교수는 이 자리에서 기업인들이 지 녀야 할 기업가 정신에 대한 주제로 강 연을 하였다. 특히 김교수는 강의 후 직원들의 예의바른 모습과 단정하면서 도 패션감각있는 옷차림이 인상적이라 고 전했다.



한세예스24문화재단 해외봉사단 5기

제 5기 한세예스24문화재단 해외봉사단 20명은 7월1일~20일, 베트남 구찌지역 에 파견되어 문화교류 및 교육 봉사활동 을 진행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호치민 인 문사회대학 학생들과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여, 더욱 뜻깊은 활동을 하였다. 올 해로 5회째를 맞는 해외봉사단은 해외에 서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교육 봉사활동 을 펼치면서 자연스럽게 글로벌 리더십 을 갖추게 되는 프로그램으로, 인재육성 을 위해 한세실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 로 이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다.



한국 표준협회 하계 CEO포럼. 김동녕 회장 강연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 스토리'

지난 8월 1일, 제주도에서 열린 '제 60 회 KSA 한국 표준협회 하계 CEO 포럼 에서 김동녕 회장은 '글로벌 기업으로 의 성장 스토리'란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이번 강연에서 한세실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잡기까지의 성장 스토리와 '한걸음 늦게가자'는 자신만 의 경영철학을 전하였다.



아이스타일24. 모이몰른 단독 론칭

아이스타일24는 한세드림이 2014년 7 월 한중 동시 론칭한 북유럽풍 유아동 복 '모이몰른'을 온라인 최로로 단독 론 칭하였다. 아이스타일24는 앞으로 '모 이몰른'과 함께 다양한 혜택과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모 이몰른은 론칭 후 감각적인 유아브랜드 로 주목을 받으며, 올해 안에 한국과 중 국에 매장수 55개가 운영될 예정이다.



한세실업. 외국인 장학생 장학금 수여

한세실업은 지난 7월 10일 제 12기 외국인 장학증서 수여식을 진행했다. 2005년부터 시작된 한세실업 외국인 장학금은 국내에서 유학하는 외국 국 적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매 학기 장 학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1년에 2차례, 상·하반기로 나눠서 진행된다. 한세 실업은 세계적인 패션기업으로서 글로 벌 인재 육성을 위해 앞으로도 우수한 인재들에게 보다 많은 지원과 격려를 전할 것이다.



희망+ 문화햇살 콘서트

한세실업은 어려운 청소년에게 문화가 있는 삶을 제공하고 함께 나누는 문화 확산을 위한 예술의전당 주최, 희망+ 문화햇살콘서트를 후원했다. 7월 10일 진행된 한국의 폴포츠라 불리는 김승일 성악가의 콘서트에 한세실업 외국인 직 원과 제5기 해외봉사단, 그리고 외국인 장학생과 문화소외 청소년, 다문화 가 정 청소년들이 참석하여 평소 공연을 접하기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의 희망 멘토가 된 시간이였다.



베트남 제3국인 한국 관광

제44차 베트남 직원 한국 관광이 8월 30일~9월 2일에 걸쳐 진행되었다. 제 3국인 한국 관광은 외국인 직원들의 사 기 진작 차원에서 실시하는 행사로, 본 사 방문, 한국 관광 명소 관람 등을 통 해 한세실업과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 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다. 44차에는 총 5명의 베트남 소속 제3국인 직원들이 한국을 방문하였다.



제1회 팀장이상 자율 트레킹

지난 9월 13일, 북악산 둘레길에서 제 1차 팀장이상 자율 트레킹이 진행 되 었다. 이번 트레킹은 심신단련/소통& 유대관계 강화를 목적으로 서울 성곽 둘레길 중 북악산 코스에서 진행되었 다. 총 31명이 참가한 이번 트레킹을 통해 직원들은 가을을 만끽하며 푸름 과 함께 그간 못 나눈 얘기들을 나누면 서 건강과 동료를 돌아보는 소중한 시 간을 보냈다.